

#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빈들의 마른 풀 같이 / 탕자의 고백 주님만으로 /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 예배합니다	다같이
대표기도		최효은
*성경봉독	고전 3:1-3	조인래
말씀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하지수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 헌금안내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 응답찬양

##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 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린 눈물을 그가 닦아 주셨죠.  
He knows my name. He knows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 hears me when I call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 keeps running after m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고전 3:1-3)

1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2 나는 여러분에게 젖으로 먹고 단단한 음식으로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3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존재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숙은 결코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 조금씩 거두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가지로 미성숙한 모습들을 보인 이유를, 바울은 그들이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3).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부연 설명합니다. 이와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이며 (2:12),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2:16)이라고 그는 정의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를 통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우선, 무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3:4). 다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2:14). 즉, 영적인 것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 11:3). 마지막으로, 거룩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5:1). 육은 정욕을 따르는 본성이 있습니다. 거룩 (구별됨)은 육체의 본성을 제어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1서의 ‘세상의 3대 죄성’과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시기와 다툼은 ‘이생의 자랑’ 때문이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안목의 정욕’ 때문이요, 거룩이 무너진 삶을 사는 것은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첫째,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정체성). 얼마전 타개하신 세계적인 변증가 Rabi Zacharias는, 적어도 세계적 종교라 하면 4가지의 핵심원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Origin, Destiny, Meaning of Life, Morality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앞의 두 가지, 즉,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다. 그는 주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I am” 시리즈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셨습니다. (요 6:35, 8:12, 10:11, 11:25, 14:6, 15:1)

자동차 설계자가 자동차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듯, 우리를 창조하신 분만이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창세 이전에 이미 택함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엡 1:4). 하나님께로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들입니다 (롬 8:16, 고전 3:16, 벰전 2:9, 고전 7:23) 이러한 정체성만 정확히 기억하고, 뿌리내린다면 신앙 생활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정도로 정체성 확립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째, 내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양무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다 (요 10:10).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요 12:27). 예수님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낸 사람은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The purpose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이다. 성경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합니다. (전 12:13, 미 6:8) 이 신앙고백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 삶의 모습과 방향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구하는 기준도, 일상의 모습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셋째, 영에 속한 사람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삶의 큰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어도 일상에서의 작은 결정들은 여전히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등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이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삶의 본을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심지어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순종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비록 고통스럽고 큰 희생을 따를 때조차 그 뜻을 따르셨기 때문입니다 (막 14:36).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수 차례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바쁜 사역 중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수시로 기도하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었고, 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 말씀산책

**마지막으로,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일의 내 용뿐 아니라, 일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셨지만,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사역하셨습니다 (요 5:19). 단 한 번도 예수님의 권능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조차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더욱 철저히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힘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의 일관된 원리는, **사람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강한줄 아는 자들을 겸손케 하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전 1:27-29).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만 꼭 채워진 사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Of the Father, By the Father, For the Father”인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한 걸음씩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나눔을 위한 질문

1. 내 안에 있는 미성숙한 모습을 돌아보고, 어떻게 성숙되고 싶으신지 목원분들과 솔직히 나뉘보세요.
2. 설교를 통해 영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네 가지 특징을 나누었습니다.
- 1)자기 정체성 2) 삶의 목적 3)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 4)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함. 이 들 중에서 내가 비교적 잘하는 분야와, 잘 되지 않는 분야를 하나씩 나누어 봅시다.
- 3.예수님이 보여주신 본들 중에서 내게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나는 그런 점을 어떻게 배워갈 수 있을지요?

설교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란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 파송찬양

##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예배시간 : 매 주일 오후 1시  
미리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예배도중에는 이동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청년부 수련회

기간: 3/10(금,저녁)-3/12(일,오후)  
장소: 캠프버크너 (Camp Buckner)  
3835 FM2342, Burnet, TX 78611  
회비: early registration(by 2/18) - 학생 \$70/일반 \$75  
regular registration(from 2/19) - 학생 \$85/일반 \$90

수련회 사인업 QR(Retreat sign up)



작년 수련회 피드백 Survey (2022 Fall Retreat Feedback)



다음세대 교사 세미나

2월 18일(토) 오후 2시, 2층 유년부 예배실  
강사 : 연수진 권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교사 경력 30년)  
모든 다음세대 교사들 및 관심 있는 분

창립 50주년 기념 음악회

3월 4일 (토) 5:00 pm - 6:30 pm

2022년 결산 공동의회

다음주일 (2월 19일) 2부 예배 후 분당

다음세대 교사 모집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교사 모집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봉사 신청서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부

2022년 헌금 내역을 원하시는 경우 헌금 내역 신청서에 기입  
문의 : 최병진 장로 (cbjkym@yahoo.com)



팀원 모집

찬양팀 - 남/여 싱어, 건반, 일렉 기타, 베이스 (문의: 조학영)  
미디어팀 - 매주일 청년부 예배 전 주보를 프린트 해주실 분



헌양팀 신청 QR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AKPC  
PSALM\_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에스겔 37:5

THUS SAITH  
THE LORD  
JEHOVAH  
UN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E  
SHALL LIVE.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오은비 eunbe.or@gmail.com  
새가족 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